

2013년 제3차 육아지원정책 포럼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창의성 계발의 방향과 과제

일시 | 2013. 5. 22. (수) 14:00-16:00

장소 |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2013년 제3차 육아지원정책 포럼

-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창의성 개발의 방향과 과제 -

□ 일시: 2013. 5. 22.(수) 14:00

□ 장소: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14:00~14:10 개회 및 인사말

14:10~14:50 발표 1.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의 방향

이경화 |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교수, 교육대학원장

14:50~15:30 발표 2.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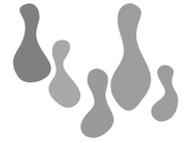
임선하 | 현대창의성연구소장

15:30~15:50 지정토론

이경희 |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김은설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5:50~16:0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발표 1.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의 방향

이경화 | 송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교육대학원장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의 방향

이경화(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교육대학원장)

세계는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한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유능하며, 일생에 걸쳐 그 탁월성을 계속 유지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르고자 한다. 그들에게 그러한 잠재적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Freeman & 이경화(2007). "우리아이 영재로 기르기" 중에서

1. 서론: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창의성 계발은 본래 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교육은 개인이 가진 잠재 능력의 계발과 가능성의 실현을 통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이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계발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면,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형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방향에서 문제를 지각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탐구의 자세와 창의적 사고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생활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조기에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의 실시는 더욱 요구된다.

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실현장에서 창의성 증진을 위해 유·아동들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기초 기술과 영역별 지식을 획득하며,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동기, 특히 내적 동기를 유발시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완수하며 스스로 경쟁심을 갖도록 하고, 선택과 발견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초인지적 기술을 계발시키고 전략을 가르치며 학습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모색하고 실제 적용하려는 교사의 노력이 요구된다.

창의성은 진공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환경은 새로운 산물이 개발될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제공하며 창의성의 발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은 창의성을 정의하고 평가할 뿐 아니라 창의성을 자극하고 지원하는데 관련된다.

창의성 계발을 위한 환경에 있어서 거시적 환경으로는 문화 환경을 들 수 있겠으며, 미시적이고 직접적인 환경으로는 가정 및 학교환경을 포함시킬 수 있다. 우리는 학교의 인적, 물적 환경이 학습자의 창의성 계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창의적 사고와 효과적인 사고에 대한 가치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 그리고 창의적인 잠재력의 이용과 발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태도와 가치가 학교에서 가르쳐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만일 학생들이 세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할 것인지, 만일 학생들이 반성적 사고를 하지 않는데 반성적 사고의 가치를 강조한다든지, 또한 만일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현하게 할지 등의 문제는 쉽지 않다. 창의성은 사고와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예전에는 관계가 없었던 아이디어들이 결합하여 기발한 생각이나 개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교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교실 안에서 창의성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창의성의 개념과 발달

가. 창의성의 개념

최근 창의성을 다차원적 구인으로 개념화하는 경향으로 인해, 창의성이란 새롭고 가치 있는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개인의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특성이 통합된 것이라고 본다. 즉, 창의적 능력과 창의적 성격이 환경 및 과제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되고 결정된다는 통합적 관점(Amabile, 1983; Sternberg & Lubart, 1991)을 수용할 수 있다.

창의성의 발달과 관련하여 이경화 외(2002)는 창의적 산출을 얻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개인적 환경(유전·가정환경 요인)이 잠재적 기초가 되어 발달된 창의적 능력(지능·사고력·지각)과 창의적 성격(성격·동기)이 상호작용 하면서 각 과제영역(문학·예술·수학·과학·정보통신)에 따라 다양한 창의성을 나타낸다고 설명하는 ‘volcano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모형을 통해 창의성이 발현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은 창의적 산출의 생산과 창의성의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종합하여 “창

의성이란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새롭고 독특하며, 적합한 산물을 생성해 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성격이 통합된 구인"이라고 정의한다. 즉 창의적 산물은 개인의 유전적, 가정적 환경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개인의 창의적 능력과 창의적 성격이 과제와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이경화, 2002, 2005).

나. 창의성의 발달

창의성 발달은 개개인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특징이나 가정 및 교육적 조건뿐만 아니라 영역 특성과 사회 문화적 맥락 내에서의 문제, 역사적 사건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창의성을 다양한 차원이 내포되어 형성되는 것이라고 개념화한다면, 여기에는 어떠한 차원이 포함되고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Gardner(1983/1993)는 아인슈타인, 피카소, 스트라빈스키, 엘리엇, 마타그레함 그리고 간디 등과 같이 일곱 가지 다른 영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창의적인 사람들의 창의적인 업적과 삶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명백히 각기 그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차원에 따른 창의성의 발생과, 각 차원간의 상호작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Torrance(1963)는 횡단적, 종단적 연구를 통해 창의성 발달을 연구했는데, 유아의 창의성은 일반적으로 증가하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체인 5세에서는 현저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감소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사회적응과 타협 및 사회적 권위에 대한 수용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요구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Torrance(1968)는 아동들은 창의성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학교에 입학할 학령초기에 슬럼프가 나타나고, 4학년이 되면 다시 '슬럼프'가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관한 초기 연구결과 중의 하나이다. Krampen, Freilinger와 Wilmes(1988), Smith와 Carlsson(1990)은 이러한 슬럼프가 6세에 나타나는 것과 10세에서 16세 사이에 조금 늦게 나타나는 것은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 Camp(1994)의 연구에서는 이런 상태가 6학년 이후에는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Urban(1991)은 그가 개발한 도형 창의성 검사를 이용하여, 4, 5세 유아와 6, 7, 8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창의성 발달을 연구한 결과, 창의성은 초등학교 1학년인 6세에서 감소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6세경에 슬럼프를 나타내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확실치 않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주로 그가 TCT-DT를

사용하였는데, 이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검사자료의 경계선 밖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가에 따라 좌우되므로, 결국 슬럼프가 나타나는 것은 창의성 검사의 하위검사에서 점수가 낮아진데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Urban의 연구결과는 Torrance가 제안한, “6세 아동의 슬럼프는 그가 다양하게 생각하고자하는 의지에 대한 학교 규칙의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러시아 학자인 Shoumakova와 Stetsenko(1993), 독일 학자인 Heller(1994)는 학교에서 학년이 높아갈수록 창의성에 있어서는 감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우종욱, 이경화 외(2003)의 우리나라 초등학생용 표준화 창의성검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국 단위로 표집된 초등학생 3500명이 참여한 연구 결과 창의적 능력과 창의적 성격, 그리고 종합점수에 있어서 학년별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이 연구에서는 창의적 능력은 언어, 도형, 소리 영역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을 측정하였으며, 창의적 성격은 호기심, 민감성, 과제집착력을 측정하였고, 이는 통합적으로 측정되었다. 분석 결과 창의적 성격은 학년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창의적 능력에 있어서는 불연속적인 발달 경향이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각 하위요인에서 4학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오히려 5학년에서 더 낮은 점수가 나타나다가 6학년에 와서 다시 상승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경화 외(2012)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창의성 발달 경향을 분석한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창의적 능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창의적 성격은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 한편, 통합창의성은 2학년 때 낮아지다가 상승한 다음, 다시 5학년 때 낮아졌다가 6학년 때 상승하는 W자 형태의 발달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Gardner(1982)는 발달과정에서 현실성이 증가되고 참신성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에는 아동이 갖는 상징 완수의 역할이 작용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7세 이전에는 상징을 그들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점차 그들이 세상을 표상하는데 사회집단을 인식하게 된다. 그 예로, 그림에 있어서도 점차 사실에 충실하게 되고 따라서 참신성이 줄어들게 된다.

Smith와 Carlsson(1983)과 같은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10세 이하의 아동들은 창의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Rosenblatt과 Winner(1988)에 따르면 어린 아동들은 참신성을 산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평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므로 현실적으로 창의적인 산출물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Vygotsky는 아동들이 참신하게 산출해내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아동들이 창의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아동들은 배경지식이 제한되어 있고, 흥미와 동기가 단순하며, 인지발달 수준이 단순하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창의성은 발달되는 것이라는 점

이다. 또한 창의성은 능력에서의 발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격발달과 마찬가지로 창의적 성격도 발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의성 신장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에 창의성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인간 발달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창의성 또한 유전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발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매우 뛰어난 창의적 능력과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발달 초기인 유아기와 아동기에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현장에서 유아 및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한다면 아이들의 창의성은 후천적으로 더욱 계발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적 능력과 창의적 성격간의 상관을 고려하여 유아 및 아동들의 창의성을 개발시키기 위한 지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창의 · 인성교육

최근 글로벌 인재양성의 문제가 화두가 되고, 21세기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주요 요인으로 창의성과 인성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고 우리 정부는 2009년 12월에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발표하게 되었고,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창의 ·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하게 되었다. 그리고 창의 인성 교육이 교육과정으로 구체화된 것은 2009년 미래형 교육과정에서이다.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2009 개정 교육과정 공시, 2009년 12월 17일)고 하여 ‘창의성’은 급변하는 세계의 변화에 개인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며, 또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된다고 보아 학교별로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방향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야 한다. 창의성을 길러야 하지만 창의성만 가지고는 위험하고 불안하다. 창의성은 올바른 인성의 틀 속에서 발휘되어야 한다.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로부터 진정한 경쟁력이 나온다.” 등의 쟁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창의 · 인성교육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및 교사의 편성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시수를 확대하였으며(초, 중3, 고4), 재정지원 강화와 이를 상급 학교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하여 현행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하여, 개성신장, 여가선용, 창의성 개발,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의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그 영역으로는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포함시켰다.

유아교육에 있어서도 창의인성교육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누리과정에서도 창의성 계발 교육 방안이 다루어졌다.

이제 창의성은 사고 성향이 아니라 삶의 핵심 역량이 된지 오래다. 이러한 창의성은 인성과 결부된 창의성으로 '창의성'과 '인성'이 결합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그렇다고 창의성과 인성이 단순하게 결합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창의·인성 교육은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살려가면서, 동시에 두 교육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창의성의 배양과 발휘를 촉진하는 인성과 사회문화적 가치와 풍토를 조성하고,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창의인성교육과정 지침, 2010-04-14).

교육목표로 존재하는 창의성은 교육 실천과 관련을 맺고 효과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경화 외(2012)의 연구를 통해서 창의인성교육의 3년간 효과 검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 창의인성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시한 모델학교의 경우에 창의성, 인성(자아개념), 학업성취에서 효과가 입증되었고,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의 인식과 창의인성교육을 어떻게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재구성해야 할 지에 대한 역량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구호로서만 다루어지고, 또한 별개의 것으로 이해되어온 창의성교육과 인성 교육을 통합하는 실효성 있는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수업모델 개발이 유아교육에서 중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현장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업모델을 학교현장에서 실천하게 될 교원대상 체계적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마련되어야 한다(이경화 외, 2010, 2012).

4.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과 영유아 창의성 지도

창의성은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며, 다양한 경험과 노력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며 독립적이고, 위기대처 능력이 뛰어나며 열정적이면서 모험심과 호기심이 많다. 또한 놀기를 좋아하고 유머 감각이 있으며 이상주의적인 동시에 매사에 심사숙고하는 특성이 있다. 그들은 예술에 관심이 있고 복잡하고 신비적인 것에 매력을 느끼며 사생활을 중시하여 혼자 있는 시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그들의 지각력은 매우 우수하고 '직관적'이다. 특히 그들은 창의적인 문제해결과정에 수반되는 모호성을 기꺼이 수용하려고 한다(Sternberg, 1988). 이러한 근본적인 특성들의 대부분은 Frank Barron(1969, 1988)과 Donald Mackinnno(1978)에 의해서 창의적 건축가, 작가, 그리고 수학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

또한 창의적인 아동들의 어떤 특성들은 교사들을 골치 아프게 할 것이다. 특히 창의적인 아동들은 교사(혹은 부모)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려하고 비협조적이며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관행에 무관심하고 냉소적이면서 자기주장이 지나치게 강하다. 그리고 부주의하고 세세한 부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규칙과 권위에 반박하고 쉽게 잊어버리거나 혹은 과잉활동을 나타내며, 대화를 잘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보조를 잘 맞추지 않는다. 그들의 과도한 에너지, 열의, 호기심, 재빠른 말, 과잉행동 등으로 인해서, 몇몇 창의적인 학생들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ADHD)로 진단되기도 한다. 그들은 약물에 의해서 차분해지도록 치료받게 된다(Cramond, 1994). 그러나 문제는 일부 영재들은 정말로 ADHD를 나타낸다는 것이다(Kaufman, Kalbfleish, & Castellanos, 2000).

역사적으로 탁월한 인물들 중의 1/4에서 1/3 정도와 유명한 예술가와 작가의 대부분은 조울증이나 그 외의 정신 질환을 겪었다. Simonton(2003)은 천재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한 성격과 그렇지 성격의 경계선 상에 놓이기 쉽다고 주장하였다. 천재와 같이 비인습적인 사람들은 기이한 사고와 유추적 사고력이 뛰어나고 지하고, 조울증을 나타내는 기간에는 우수한 작품을 산출해 내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증상이 너무 지나친 사람들은 그들의 영재성을 결단코 계발시키지 못할 것이다. Richards는 빈센트 반 고흐가 항우울성을 지녔다면, 그는 아마 “나는 행복하게 그림을 그린다..... 검은 벨벳위의 어릿광대처럼!”라고 즐거이 외쳤을 것이라고 하였다. 필자들은 창의적인 영재성 혹은 생산성이 학령기에 나타나는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최근 연구를 본적이 없다.

창의적인 사람의 개인적 특성들은 창의적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연극 공연에는 창의적 특성들(예, 유머, 에너지, 미적 흥미, 위기 대처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연극은 창의성을 가름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밖에 창의적인 사람들의 성격 특성에는 여행하기, 여러 지역에서 생활하기, 더 어리거나 더 나이 많은 친구와 사귀기, 상상 속의 친구와 교류하기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특성들이 모든 창의적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창의적 특성들은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교사와 부모에 의해 신장될 수 있다. 태도와 성격 특성은 더 많은 융통성, 창의성, 그리고 자아실현인이 될 수 있도록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영유아들이 가정 및 보육기관에서 받는 교육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어떤 교육보다도 지적·정서적 영향력이 크다. 특히 유아기는 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그리고 창의성 등 모든 영역에서의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어린이들이 겪는 문화적 경험은 이 시기의 발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린이는 발달해나가면서 주변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마음, 즉 민감성이 커지면서 탐구하는 태도가 자라나게 되고, 점차 상상력이 풍부해지면서 창의적인 사고가 발달하게 된다. 어린이들은 누구나 발달 과정에서 세상의 모든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우주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개체로서 성장하며, 상상과 추론이 가능해지면서 점차 개방적이 되고 감수성이 예민해진다. 그런데 유아기에는 비록 상상력이 발달하게 되더라도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틀 속에 있으므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어렵다. 따라서 이 시기 어린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읽을거리나 놀잇감을 제공하여 주고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의 창의성 발달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아이들은 말하기, 그림 그리기, 노래하기, 춤추기,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즉, 유아들의 창의성은 다양한 활동 속에서 표현된다.

한편 발견의 기쁨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느끼기 시작한다. 다행히도 이런 기쁨을 계속 지니게 되는 어린이는 아마도 평생 동안 꾸준히 배우고자 하고, 문제를 만들며 그것을 푸는 것을 열망하게 된다. 이렇게 바로 출발한 어린이는 창조적이고 만족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따라서 나중에 학교가 이러한 영감을 부여할 것이라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다. 탐구방법은 그 전에 가정에서부터 터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의 발견을 격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물을 찾거나 자신의 것을 만드는데 특별한 충동이 있는 똑똑한 어린이는 다른 아이들 보다 훨씬 두드러진 면모를 지닌다. 창의적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어린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점점 더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린이는 더욱 열심히 발견을 위한 노력을 한다. 창의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능력 그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느낌이나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만지거나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각도를 달리하여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아기의 '바보 같은' 아이디어나 '멍청한' 질문도 사실은 탐구와 시험의 형태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 지나칠 일이 아닌 것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본다면, 이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독립적이며 위험을 감수하고 위기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열정적인 동시에 모험심과 호기심이 많고 재치가 있다. 또한 이들은 이상주의적이고 예술적이며 신비롭고 복잡한 것에 매력

을 느끼는 경향이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반면 이들은 고집이 세고, 지시받는 것을 싫어하며 비협조적이고 냉소주의적이며 규칙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향이 있고 말이 없는 편이다.

창의적인 사람이 가진 특성을 인식하는 것은 창의적인 아동을 판별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창의적 아동을 완전히 판별하기란 쉽지 않다. 아인슈타인, 에디슨, 처칠, 피카소, 파스퇴르, 월터 디즈니, 찰스 디킨스 등과 같이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들도 실제로는 교사나 교수 혹은 전문가들에 의해 창의적인 사람으로 판별되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이 주역이 되는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창의적인 인재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가 창의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 창의성을 재발견하여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5.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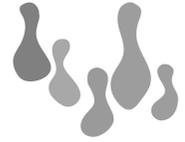
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할 목표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학교교육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교육목표는 사고력과 창의성의 신장이라 할 수 있다. 사고력, 즉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의 기능, 형태, 과정 면에서 볼 때 그 종류는 다양하다. 예컨대, 기능 면에서 분류한다면 주의력, 기억력, 추리력, 지각력, 창의성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 형태별로도 논리적 사고, 문제해결력, 의사 결정력, 창의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인간의 사고력 중에서도 최근에 이르러 가장 고차원적이며 생산적인 지적 작용이라고 보는 창의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이 교육현장과 연계될 때, '창의성은 학교교육을 통해 신장될 수 있을 것인가? 교수-학습방법이 학생들의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창의성의 조기계발 및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이때, 유아교사들은 유아들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해야 한다. 창의성에 관한 연구들은 능력, 흥미, 태도, 동기, 일반지능, 지식, 기술, 습관, 가치 그리고 인지양식 등 여러 가지 변인이 개개인의 창의성 발현에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현장에서 유아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개별적 특성과 상황적으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지도하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 이경화(2002). 창의성 발달의 이론과 과제. 영재와 영재교육. 1 (2), 48-67.
- 이경화(2013). 유아용 통합창의성 검사, 초등~고등학생용 집단 창의성 검사, 학지사
- 이경화·최병연·박숙희(역)(2004). 창의성 계발과 교육, 학지사.
- 이경화·최병연·박숙희(역)(2005). 영재교육(5판), 박학사
- 이경화·김혜진·김옥분(역)(2008). 경험연구에 기초한 영재교육, 시그마프레스.
- 이경화(2009). SIGT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본 영재 창의성 교육프로그램의 특성과 전망. 영재와 영재교육, 8권 2호.
- 이경화·임선하 외(2010). 범교과 창의인성교육과정(지침). 교과부, 한국과학창의재단.
- 이경화·장숙현(2011). 글로벌리더 언어프로그램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 23권 3호.
- 이경화·지나영(2012). 유아 리더십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적 리더십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창의력교육연구, 12권 1호.
- 이경화 외(2012). 창의인성교육 효과분석, 교육과학기술부.
- 이경화·최병연(2012). 초등학생의 창의성 발달 경향 분석, 영재와 영재교육, 11(2). 129-146.
- 한순미·김선·박숙희·이경화·성은현(2005). 창의성-사람, 환경, 전략-, 학지사.
- 전경원·이경화 외(역)(2009). 창의성- 이론과 주제, 시그마프레스.
- 송인섭·이신동·이경화 외(역)(2009). 영재교육의 주요 이슈와 실제, 시그마프레스.
- Freeman·이경화(2007). 우리아이 영재로 기르기, 학지사.



발표 2.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 전략

임선하 | 현대창의성연구소장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 전략

임선하(현대창의성연구소장)

1. 들어가는 글

최근의 교육적 관심은 창의인재 양성에 모아지고 있다. “창의형 인재가 대안이다”, “창의적 인재없이 4만불 소득없다”, “게임의 룰을 바꾸는 창의적 인재가 절실하다.” 귀가 따갑게 자주 들어온 말이다. 핸드폰 제조의 달인 삼성전자가 불과 수년 전부터 스마트폰을 만들기 시작한 애플에게 일격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없는 위기 의식을 느낀다. 하던 일을 열심히 잘 하면 되는 세상이 아님을 절실히 학습한 것이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대한 갈망은 절실한 것이다. 이제 사회 각 영역의 역량을 점검하고 가시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루어졌다. 산업계의 일로 치부하던 과거의 분위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교육계가 원인 제공자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 정부의 창의·인성 교육 정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그 어떤 단위 교육 정책보다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다. 창의성 교육의 분위기 조성에 성공한 지난 시간의 성과에 이어 이제는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실제적인 성취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 글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해 창의인재를 기르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이 있다. 전인적 발달에 중점을 둔 우리의 교육 전통에서는 영유아기의 교육이 인간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즉시적인 인재 배출 체제인 대학과 중등 교육에 중점을 두는 국가 정책으로 인하여 영유아 교육과 보육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이제 자원이 중심된 산업 사회를 벗어나 인간이 중심된 창의 사회로 들어섬에 따라 우리의 교육 정책도 근원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시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보다는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한 교육 시스템인 영유아 교육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2. 교육 다시 들여다보기¹⁾

1700년대 초 일어난 산업 혁명은 산업 사회의 틀을 형성하는 모든 가치를 생성했다. 그리고 그 가치는 300여년을 이어 훼손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산업 혁명의 종주국들은 최강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부를 축적해왔다. 하지만 기계가 아닌 지식 정보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최근의 창조 혁명은 또 다른 사회의 틀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초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의 틀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던 것들과는 매우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틀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 틀의 종주국이나 선도 국가가 되는 것은 이 틀이 지배할 미래를 선점하는 것과 같다. 산업 사회의 종주국과 선도자가 누린 지위와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누린 지위의 차이를 아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조급하다. 사회 패러다임의 변환 시기는 국가마다 다르다. 이는 산업화의 성숙도와 관련이 있다.

〈표 1〉 산업 사회와 창의 사회

사회의 핵심 코드	기존 산업 사회	창의 사회
핵심 생산 요소	토지, 노동, 자본	아이디어, 콘텐츠
핵심 산업	건설, 철강	문화
불평등 결정 요인	노동과 자본의 정도	정보의 양과 질
사회 구조 특성	고정적 틀(닫힌)	변화하는 체제(열린)
핵심 사고	논리, 비판	창의, 통찰
교육 중점	지능, 이해	통찰, 구성
교육 속도	빠름(민첩)	느림(숙고)
인재 모형	평균적 상식인	특정 영역의 장인(匠人)
교육 모형	주입모형(지능)	의미모형(창의)
핵심 역량	英才	創才

산업 사회와 창의 사회는 서로 큰 차이가 나는 사회의 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 사회의 틀을 벗어나 창의 사회의 틀로 들어섰다. 따라서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창의 사회의 틀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느리고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교육이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교육 체제의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장을 지낸 이명현 전 장관은 최근의 한 모임에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요청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이명현, 2011).

1) 이 부분은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 전략 제5차 전문가 종합 포럼', 서울중앙우체국, 2011년 10월 11일에서 필자가 발표한 글을 바탕으로 함.

“지나간 인류 역사를 뒤돌아 보면 교육은 문명의 모양새와 더불어 그 모습이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경문명 시대의 교육과 산업문명 시대의 교육은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가 얼마나 그 시대 상황에 알맞은 효율적인 교육제도와 교육방법을 채택했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삶의 형태와 삶의 질의 높낮이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산업문명에 적합한 교육 제도와 교육방법과 환경에 그냥 매달리고 있게 된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새로운 문명세계의 중심권으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새 술은 새 자루가 어울리듯이, 신문명의 주역의 양성은 새로운 교육의 틀을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의 새 자루, 새 틀의 창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 문명의 중심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배출하는 일입니다.”

거의 유일하고 완전한 것처럼 인식되어 온 학교 또는 학교제도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촉발시킨 일리치(Illich)가 ‘탈학교 사회’를 발표한 것은 1970년이다. 그의 주장은 당시의 사회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매우 진보적인 것이었지만, 탈학교 사회(deschooling society)를 주장한 그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그 어떤 유형의 학교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었다. 사회에서 학교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학교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schooling society)에 대한 반발의 의미를 드러낸 것이었다. 사회가 담당해야 할 임무까지 학교로 집중됨으로써 오히려 학교가 관료화되고, 획일화되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꽤 오래 전의 문제 의식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일리치의 말을 들어보자(일리치, 1984, p.53).

“(아동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과 목적과를 혼동시키기 위한 것이다. 과정과 목적이 혼동되게 되면 새로운 논리가 등장하게 된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느니, 일을 단계적으로 축적해가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느니 하는 논리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학교화’(schooled)되게 되면 아동들은 교수를 받는 일과 학습하는 일을 혼동하게 되고, 따라서 진급한다는 일 자체가 그만큼 교육을 더 받은 것으로 생각되고, 졸업장을 받게 되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와 같이 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과 혼동하게 된다. 그 아동의 상상력도 ‘학교화’되어서, 가치 대신에 제도의 서비스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근대 학교의 체제를 구안한 호레이스 만(Horace Mann)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이런 논의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임선하, 2010). 호레이스 만은 150여년 전 2차 산업 혁명의 성공에 따른 사회 변화(대량 생산을 위한 거대한 공장의 균질한 노동력 요구)를 교육적으로 수용하는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당시의 교육 제도는 한 사람의 교사가

여러 연령층의 학생들을 한 장소에 모아 놓고 여러 영역의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런 방식으로는 대량으로 요구되는 인력을 충원할 수 없었다. 그는 1차 산업 혁명에 성공한 유럽에 눈을 돌린다. 1843년 독일의 학교를 방문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18세기 독일의 프리시아 왕정(Kingdom of Prussia)은 세금을 지원하는 8년제의 초등 교육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무 교육제도를 도입했다. 이것이 곧 국민 학교(Volksschule)이다. 이 학교에서는 초기 산업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능(읽기, 쓰기, 셈하기)은 물론 윤리, 의무감, 도야, 그리고 복종심을 엄격히 교육시켰다. 그는 1852년 독일의 교육제도(Prussian education system)를 바탕으로 미국에 맞는 새로운 교육제도를 구안하여 Massachusetts 주에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가 새롭게 구안한 교육 제도는 학습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학년을 나누고, 교과 영역별·학년별로 교사를 단기간에 양성하여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교사 양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학습 관리는 균일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산업계의 대량 생산 시스템에 적합한 교육 제도가 완성된 것이다. 이 제도에 호감을 느낀 뉴욕 시장은 이 학교 제도를 실험적으로 12개 설립하였다. 그리고 산업 사회의 발달과 함께 이 제도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교육 제도의 표준이 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어원적으로 ‘여유’에서 비롯되고 상당히 여유롭게 운영되어온 이전의 학교가 학습자들이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잘 짜여진 경주로를 달리도록 기획되어진 기관의 이름으로 바뀐 것이다. 이후 학교는 과거와 먼 미래 사이의 넓은 스펙트럼을 상실하고, 가까운 과거와 매우 가까운 미래(학교 졸업 후 직장을 가질 때까지) 사이의 좁디 좁은 스펙트럼을 갖게 되었다.

한말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호레이스 만이 제도화한 새로운 교육 제도(신식 교육 제도)를 수용하는데 거부감을 나타냈다. 선교사들을 통해 도입된 새로운 교육 제도는 확산되지 못하다가 일제의 침략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교육 제도인 서당 교육과 충돌을 일으킨다. 황국 신민화와 식민지 산업화를 추구하던 일제는 이념과 역사성이 살아있는 서당을 배제하고, 기능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의미지워진 새로운 교육 제도 즉 신식 교육을 받아들이는데 치중한다. 강제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긴 하지만 해방 후 미군정의 영향과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반성과 자각이 없이 새 교육 제도는 ‘당연한 교육 제도’로 정착된다. 그리고 산업화를 성공으로 이끈 매우 좋은 제도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산업 사회가 쇠퇴하고 창의 사회가 대두되면서 이 당연한 교육 제도에 조금씩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제도권 안에서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해결책을 제시한 연구는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로 축적되어 왔다. 제도권 밖으로 관심 영역을 넓혀 문제를 바라보는 학자들도 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새로운 개

님의 학교를 설립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대안학교는 이런 움직임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마치 지금으로부터 160여년 전 호레이스 만이 기존의 교육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교육 체제를 구안한 것처럼, 기존의 학교를 벗어나 새로운 학교 또는 교육 체제를 구안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로마클럽은 인류가 처한 심각한 문제들을 사람들이 인식한다고 해도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인지는 확신이 없다는 판단을 토대로 지금의 학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otkin,J., Elmandjra,M, Malitza,M.(1979). 해결 곤란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인간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데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개발된 능력은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학교 제도는 현장 유지와 현상 적응형의 학습에 치중하고 있다고 본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미래 지향의 혁신형 학습을 수용하는 것이다. 혁신형 학습이란 先見과 參加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학습은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전통 문화의 계승, 사회적 규칙의 습득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의 학습은 다가오는 미래의 위기를 통찰하고,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새로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두어야 한다. 현상 적응을 위한 학습 뿐만 아니라 미지의 세계와의 조우에 대처할 수 있는 선견적인 학습이어야 한다.

세계의 표준이 된 근대 교육의 발상지인 미국에서도 이런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Lieberman(1993)은 ‘public education:an autopsy’라는 책 이름 그대로 공교육의 사망을 공식화하고 있다. 사망 원인은 공교육의 존재 이유인 기초 기술, 과학적/문화적 문맹탈피, 시민으로서의 덕목, 사회와 사회 제도에 요구되는 습관과 태도 등을 효과적으로 길러주지 못한다는데 있다(p.1). Price(2006) 또한 기존의 학교가 실패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는 이미 기존의 지식을 배우기에도 벅찬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의 존재 문제가 걸린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절박한 시점에 있다. 정작 중요한 배움의 방향이 되어야 할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은 과거의 것을 공부하느라 희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은 없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얻어지는 교과목의 점수가 미래의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매우 소극적인 기대 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제 다시 교육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 현재의 삶에 대응하고 미래의 준비에 최적화된 교육이 자리잡아야 한다. 이런 요구를 반영하여 최근의 교육은 기존의 교과 중심 교육(학교 중심 교육)을 넘어서서 핵심 역량의 비중이 커지는 교육(현재의 삶과 미래 중심 교육)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상황을 시간 축에 배치한 교육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교육이 시간적으로 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현재와 미래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표 2〉 시간 축으로 보는 교육의 핵심 사항

교과서 중심; 과거 기반	삶 중심; 현재 기반	예측 중심; 미래 기반
지식	지혜	통찰력
진리	사실 / 가설	예지
고정적인 것	유동적인 것	상상적인 것
확실한 것	혼돈스러운 것	구상하는 것
오래된 것	새로운 것	예측된 것
교과서/책/문서/규칙	생활/신문/잡지 등	인간의 상상력/ 통찰력
*고지식인 (웹کم투동막골의 김선생)	*신지식인 (실천 바탕의 전문인)	*전략가 (통찰적 지식인)
*academic smart	*street smart	*idea smart

시간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의 핵심 사항은 특정한 교육의 상황에서 어느 시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미래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좀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학제운영의 폐쇄성, 경직성으로 인해 진학과 취업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과 이동을 보장하지 못하고 저출산, 세계화, 지식기반사회 심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미흡하다. OECD에서도 유아교육(ECEC) 정책은 유아들에게 단순히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성고용, 아동빈곤, 유아교육 단계 이후의 다른 교육 등 다른 정책영역과도 밀접한 관계에서 수립·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OECD,2006).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유아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정책 환경으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이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정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육아·교육 등에 드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한편, 특히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것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여유시설 등을 활용하고, 평가를 강화하여 육아서비스의 질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특히, 최근 아이들 발달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 입학연령을 1세 낮추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고, 절감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에 집중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제안하였다.

2009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창의성(creativity)을 “독창적이면서도 유용한 산물을 산출할 수 있는 사람의 특성”이라고 정의한다. 창의적인 사람은 인지적, 정의적, 동기적 특성을 적절히 조화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설정된 창의성의 요소들은 (1) 인지적 특성으로서, 사고의 확장, 사고의 수렴, 문제해결력이 있다. 사고의 확장은 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고의 수렴은 확산적 사고를 통해서 얻

어진 다양한 생각들 중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수렴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 즉 사고의 수렴과정을 의미한다. 문제해결력은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략과 기법을 의미한다. (2) 성향적 특성에는 독립성과 개방성이 있다. 독립성은 자기주도성과 같은 성향적 특성과 독창성과 같은 인지적 특성으로 구분된다. 개방성은 예술과 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관찰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민감성, 다양한 아이디어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열린 마음, 모순되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잡성, 애매모호함을 견디어 내는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3) 동기적 특성은 성취를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활동에 깊게 빠져드는 몰입, 일상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호기심과 흥미, 아울러 스스로를 동기화 하는 요소 등이 있다. 호기심/흥미는 창의적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항상 생동감 있게 주변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의문을 갖고 끊임없는 질문을 제기하는 성향이다. 몰입은 어떤 일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게 되는 완벽한 주의집중 상태를 의미한다. 창의·인성이라는 목표는 이에 더해 인성 요소를 포함한다. 창의성과 인성의 융합적 지향을 의도하는 것이다.

3. 창의성 교육의 조건

Gowin(2005)의 말을 빌리자면 “교육은 의미를 공유하는 사회적 현상이다.(p.7)” 이를 확대하면 ‘창의성 교육은 창의적 의미를 공유하는 사회적 현상’이다. 좀 더 친절하게 말하자면 창의성 교육은 크게 창의적 의미를 찾아내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하는 사회적 현상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창의적 의미를 찾는 일’이다. 사회 속에는 창의적 의미를 가진 대상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의 창의적 의미를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대상의 창의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창의성의 의미(즉 개념)를 알아야 한다. 창의적 의미의 공유는 원초적으로 개인의 각성에 중점이 있는 창의성이 집단과 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활동이 바로 교육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현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하나의 개인적이거나 또는 집단적인 현상이 사회적 현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공익성, 진정성 그리고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

창의적 사고는 논리적 사고와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논리적 사고는 정해진 논리적 사고의 규칙을 적용하여 사고하는 것이다. 정형화된 사고인 것이다. 하지만 창의적 사고는 규칙이 없다.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창의성은 봄눈과 같아서 아주 미세한 환경의 변화에도 쉽게 부서진다. 그 이유는 창의성은 특정한 논리를 바탕으로

추론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의성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자극시키는 적절한 환경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창의성은 실제적 대상이기도 하지만 개념적 대상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고 '누구는 창의성이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 대상으로서의 창의성을 인식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창의성은 어떤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와 같이 말하는 것은 창의성을 개념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물론 이 둘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다.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매우 창의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개념으로서의 창의성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개념으로서의 창의성의 이해가 심화되면 실제로서의 창의성도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창의성은 매우 다양한 이해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천부적인 재능이라는 입장에서부터 고도의 합리적 사고라는 입장까지 이해의 폭이 아주 넓다. 여기에 더해 창의성은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개념화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창의성의 의미를 하나로 정리할 수는 없다. 임선하(1993, 1998)는 창의성을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개인의 사고 특성'으로 개념화하고, 추상적인 수준의 개념을 행동 수준으로 구체화시켜 114개의 창의 요소를 유기적으로 구조화한 DESK 모형을 제안하였다. 창의성의 DESK 모형에서 설정한 창의성의 내용 범위와 그 위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가. 영역(domain)

창의성은 4개의 영역(D,E,S,K)으로 구분된다.

- 태도 요인으로서의 성향(disposition)
- 사고 자료로서의 개인의 경험(experience)
-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기술인 기능(skill)
- 사고 대상 관련 지식이나 창의성 관련 지식(knowl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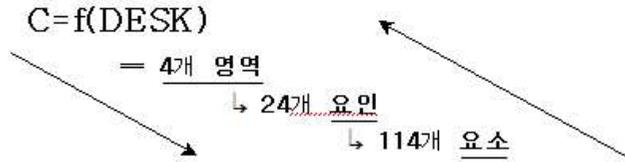
나. 요인(factor)

각 영역별로 그것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있다. 24개가 있다.

다. 요소(element)

각 요인마다 구체적인 요소가 있다. 이 요소들은 모두 114가지이다. 이들은 창의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데 작용하는 비교적 구분 가능한 영역, 요인 그리고 요소들이다. 이들 각 영역의 앞 글자를 따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설정할 수 있다.

임선하의 창의성 공식



C=Creativity, D=Disposition, E=Experience, S=Skill, K=Knowledge

각 요인별로 더 구체적인 요소들이 114개 설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성향 영역의 호기심 요인의 요소들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영역D - 창의적 사고 관련 성향	
인간의 내적 인지적 특성으로서의 창의적 사고 기능이 최종적인 인간의 성취를 위해 작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정의적 또는 태도적 특성이다.	
느낌, 태도, 성격, 기질	
요인	요소
1.호기심	(1) 주변의 사물이나 사태에 대해서 '왜 그럴까?' 또는 '무슨 일일까?' 하는 질문을 의식적으로 제기하기 (2)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이면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갖기 (3) '새로운 것'을 즐기기

창의성은 그것이 정의되는 조건에 따라 서로 달리 이해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거의 정반대의 갈등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창의성이 확산적 사고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수렴적 사고의 상황에서는 창의성이 발휘되기 힘들다고 말한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그에 걸맞는 자극 조건이 정당화된다. Arieti(1976, pp.324-325)는 창의성이 발생하는 사회(creativogenic society)에 요구되는 특성을 9가지로 정리하였다. 여기에 필자가 제시하는 몇 가지의 특성을 더해 다음과 같은 표를 제안한다.

〈표 3〉 창의성이 자극되는 조건

분류	내용	시사점	고려 사항
문화적 물질적 수단의 활용 가능성	창의성을 자극하는 환경인가?	창의 전용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에서 벗어난 공간(예;박물관) - 창의 전용 공간임을 인식시키는 안내 - 창의명당인 화장실에서의 사유와 기록
	창의적 역량 개발의 시간적 공간적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확장 - 공간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개방(온라인, 오프라인) - 인접 시설(자원)과의 연계
문화적 자극에 대한 개방성	문화적으로 창의성을 요청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다양성 - 독특함 - 조직과 운영 과정의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다가치 수용 - 생각의 소수자 인정 - 유연한 조직/운영
존재 자체 만이 아닌 성장에 대한 강조	불만족을 창의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문화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물질적 욕구 실현 - 실패/스트레스 등을 자유롭게 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라는 모든 것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실패에의 관용) - 카타르시스 분출
문화적 매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창의적 사고의 재료인 문화적 매체에 대한 접근은 가능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인적 자원 지원 - 풍부한 물적 자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그룹 - 풍부한 자료/풍부한 물품
모진 억압과 차별	창의성은 양적으로는 소수의 조건이기 때문에 차별적 조건이 더 창의적일 수 있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 아이디어 - 작은 아이디어 - 과거 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공간 마련 - 소그룹 공간 마련 - 역사와의 접근 공간
다르거나 대비되는 문화적 자극에 대한 노출	문화 사이의 혼합의 상황이 이어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학문, 영역 간의 융합적 공간 - 사람들(연령/지역) 사이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 사이의 융합(예;STEAM) - 문화 사이의 융합(예;다문화 행사, 전시) - 다양한 특성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문화 공유 공간

(표 3 계속)

분류	내용	시사점	고려 사항
독특한 관점과 아이디어에 대한 포용과 흥미	사람들은 독특함을 인정하는가?	- 개인 아이디어 완성 기회 제공 - 개인 아이디어 발표와 피드백	- 자연적 공간(예;타지역 여행과 생활) - 상상적 공간(예;유물관, 상상체험관) - 추론적 공간(예;박물관, 전시관) - 구성적 공간(예;목공, 영상, 실험, 책) - 발표와 피드백 공간
의미있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 작용	상호 작용이 허용되는 사회인가?	협동 작업 공간	- 작업/전시/발표/토론 공간
격려와 보상	창의성의 가장 위대한 보상은 창의성이다.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으로 공간 지원	- 창의적 만족감 - idea battle - 활동 우수자 포상
아이디어의 산출	아이디어는 산출물로 연결될 수 있는가?	아이디어의 산업화	- 아이디어의 디자인 - idea2venture - 산학 협력 공간
자신을 반성적으로 살피기	자신의 생각을 통합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	상위인지(metacognitive thinking) 자극	- 여유 공간 - 명상 공간 - 치유 공간
정신적 안정감	정신적으로 안정감있는 환경인가?	창의성의 치유적 기능	- 치유의 기능 또는 공간

*Arieti(1976) pp.324-325에 임선하의 생각을 더함.

창의성의 이해와 교육의 바탕에는 시간과 공간의 동시적 이해 또는 관통적 이해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교육이 의존하고 있는 시공간적으로 과거와의 결별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시공간으로서의 현재와 인간 만의 속성인 미래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표 4〉 시간 축으로 보는 교육의 핵심 사항

교과서 중심; 과거 기반	삶 중심; 현재 기반	예측/구상 중심; 미래 기반
지식	지혜	통찰력
진리	사실 / 가설	예지
고정적인 것	유동적인 것	상상적인 것
확실한 것	혼돈스러운 것	구상하는 것
오래된 것	새로운 것	예측된 것
교과서/책/문서/규칙	생활/신문/잡지 등	인간의 상상력
지능	지혜	통찰력

(표 4 계속)

교과서 중심; 과거 기반 *고지식인 (웰컴투동막골의 김선생) *지능영재(IGT) *academic smart	삶 중심: 현재 기반 *신지식인 (실천 바탕의 전문인) *창의영재(CGT) *street smart	예측/구상 중심: 미래 기반 *전략가 (통찰적 지식인) *슈퍼영재(SGT) *idea smart
--	---	---

자료: 임선하(2009)

진정한 창의성 교육은 시간(역사, 지식, 철학, 이념 등)과 공간(문화, 풍습, 등)을 통합하는 지점에서 가능해질 것이다.

4. 창의인재의 속성과 영유아 교육/보육의 제안된 정책

가. 창의인재의 속성

필자는 창의인재를 “뛰어난 창의성으로 개인과 사회의 공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런 인재를 기르려면 교육 기관은 물론 사회 체제가 창의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전통적 개념으로서의 창의성은 집단(society)이 아닌 개인(individual)을 전제한다. 창의성의 근본 전제인 개인의 태도를 개인적이지 않고, 사회적인 공공적 방향으로 돌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비고츠키가 그토록 강조한 ‘정신기능은 사회 문화에서 출발하므로 개인 정신기능을 이해하려면 개인 기능이 파생되어 나온 사회·문화적 과정부터 탐색해야 한다’는 언명(Wertsch, J. and Tulviste, P., 1992)은 요즘 들어 더 의미있게 다가온다.

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보육의 제안된 정책

영유아 교육은 최근까지 교육 정책 논의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논의는 이어져 왔다. 이기숙(2007)이 정리한 유아 교육 정책 7대 과제는 그 핵심에 도달해 있다.

- 1) 유아 교육 예산을 전체 교육 예산의 10%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유아 교육 예산은 2007년 전체 교육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생애 교육 중 영유아기 투자가 인적 자원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다. Cunha, Heckman, Lochner and Masterov(2005), OECD Start Strong II(2006)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 교육 투자는 성인기에 16배의 효과로 나타난다(미국의 Perry School Project)

- 2) 만 3,4세 무상 공교육을 100% 완성해야 한다.
- 3) 영유아에게 양질의 유아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양질의 유아 교육은 협동심, 독립심, 사교성을 높이고,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킨다.
- 4) 영유아 교육은 향후 '유아학교' 체제로 되어야 한다.
- 5) 획기적인 영유아 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행정적 낭비를 정비해야 한다.
- 6) 영유아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선진형 영유아 교사 양성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초중등학교 교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수와 근무 환경을 해소하고, 초중등 교사와 일관된 양성 체제 및 연수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 7) 사교육 및 특기 교육화되고 있는 영유아 교육 현장은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각종 특기 교육이 만연하고, 영재 교육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

강승규(2011)의 한국유아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제언도 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 1)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유아교육의 완전 공교육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3) 유아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유치원교사 양성체제 및 자격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만5세 초등학교 취학(안)의 철회이다.
- 5) 초·중등교육과정과 함께 개정되는 유치원교육과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다.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의 실천 방안

기존에 논의되어 온 영유아 교육에 대한 정책안들은 크게 체제 개선(일원화, 유아학교, 5세 초등학교 취학 철회), 역량 개선(양질의 유아 교육, 양질의 교사 양성과 자격 기준, 사교육과 특기 교육 정비), 그리고 재정 지원 확대(교육예산의 10% 확보, 무상 공교육)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도 체제 개선 정책과 재정 지원 확대 방안들은 이미 실현되었거나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이런 영역의 정책안은 본 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역량 개선 영역인 양질의 유아 교육, 양질의 교사 양성과 자격 기준, 그리고 사교육과 특기 교육 정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양질의 유아 교육 지표 설정 필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1)의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중에서 유아 교육 지표나 OECD(2012)의 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 한국 정책 프로파일 지표 모두 성과를 결정하는 투입 변인으로서의 교육 내용의 성격과 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양적 기준을 바탕으로 유아 교육의 질을 결정지으려는 것으로서, 창의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 보고서(권미경, 김문정, 2012)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유아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면 환경을 정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동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줄 수 있는 자극 변인이다.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해도 자극 변인이 달라지면 그 성과는 달리 나타난다. 자극 변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활동)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 보고서(권미경, 김문정, 2012)에 의하면 지자체별로 특화된 창의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광주시 등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교수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의 일괄적인 보급으로 인해 다양성과 활동을 강조하는 유아 교육이 획일화될 수도 있음은 명심해야 한다.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선정 가능한 질적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창의성 자극 프로그램 또는 활동 개발 역량
- 창의성 자극 프로그램 또는 활동 지도 역량
- 창의성 자극 프로그램 또는 활동 평가 역량

2) 양질의 교사 양성과 자격 기준 설정 필요

영유아 교육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의미를 찾아가도록 돕는 과정이다. 뉴우턴이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해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진위는 모른다. 하지만 이 말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연 속에서 접하는 모든 사물을 학습자에게 의미지우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육 내용을 피교육자의 내부로 주입하는 방식, 즉 주입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피교육자의 내부에서 발산되는 특정한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즉 의미 모형이다. 어느 것이 더 가치있는지는 지금 말할 필요가 없다.

〈표 5〉 학습의 주입 모형과 의미 모형

구분	주입모형	의미모형
교육 목표	명시적	암시적
교육 공간	한정	무한정
교육 준비	적음	많음
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	의미화가 가능한 모든 사람
교사 역할	정해진 것 가르침	모든 것에 관심
평가	계획적	상시적

두 가지의 교육 방식은 다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다만 새 시대에는 새로운 교육관이 중심되는 위치에 서야 할 것이다. 주입 모형이 산업 사회를 지탱해 온 교육 모형이라면, 창조 사회에서는 의미 모형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의미 모형의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천재적인 세기의 발견이나 발명의 이면을 설명하는 이론인 Mansfield and Busse(1981)의 우연-부각 이론(chance-configuration theory)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아동들은 자연스럽게 마음껏 행동한다. 이들 행동 중에는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행동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행동도 있을 것이다. 우연-부각 이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행동 중에서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행동에 의미부여를 해주는 것이 그런 능력을 갖는 사람을 기르는 첫 단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자 집안에서는 교육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사업을 하는 집안에서는 사업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사의 학급에서는 창의적인 학생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유전 때문이 아니라 우연-부각 이론으로 설명되는 자연스런 행동과 교육적 의미 부여의 인과성 때문에 이런 설명이 가능해진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양질의 교사를 길러내고 선발하는 일은 중요하다. 교사의 창의적 교육 역량을 기르는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교사 양성 교육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 일이지만 현직 교사의 연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아래는 창의성을 지도하는 교사의 기초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연수 내용(시안)이다.

〈표 6〉 창의지도 교사 역량 개발 과정(안)

강의	강좌 개요	과제
창의 지도교사의 역할	창의지도교사의 역할별로 요구되는 기능	과제1: 현행 창의성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활용 분야 예측 및 예상 효과 분석을 통해 창의지도교사로서의 자신의 목표 설정하기
창의성 교육을 요청하는 사회	사회, 경제, 교육적으로 창의성이 요청되는 상황	
유아 교육과정 이해	유아 교육과정을 창의성 교육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해	
창의성의 내용 구조	창의성의 성향적 이해	

(표 6 계속)

강의	강좌 개요	과제
창의성의 내용 구조	창의성의 경험 기반과 지식 기반	과제2 : 실생활 속에서 창의성의 사례를 찾아 정리하기
창의성의 내용 구조	창의성의 기능적 이해	
기존 창의성 프로그램 분석	창의성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창의성 기법	브레인스토밍, 시넵틱스 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창의성과 교과	내용 소재로서의 교과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	과제3 : 유아 교육과정을 수준별로 분석해 보기 (영어, 유아, 유치)
창의성과 독서	내용 소재로서의 독서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	
창의성과 NIE	내용 소재로서의 NIE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	
창의성 기반 이야기	내용 소재로서의 이야기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	
창의성 프로그램 지도법	구체적인 창의성 프로그램 지도 사례	과제4 : 학습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모의수업시연)
수업의 실제1	프로그램 지도 능력 배양(영어반) ⇒	
수업의 실제2	프로그램 지도 능력 배양(유아반) ⇒	
수업의 실제3	프로그램 지도 능력 배양(유치년) ⇒	

3) 사교육과 특기 교육 정비 필요

영유아 교육은 기관 운영자의 교육철학과 경영 방침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아직도 운영의 투명성이 높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도 원생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투명하지 않고 이기적인 사교육과 특기 교육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송현숙(2013)이 쓴 기사는 우리나라 영유아 사교육의 부작용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시간에 멍하게 딴 곳을 바라보거나 축 처져 있는 아이들이 많다"며 "장난치는 아이들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15년 전 처음 교단에 설 때와 너무 달라졌다. "1~2학년 때는 한창 생기발랄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엉뚱한 질문도 할 때잖아요. 근래에는 좀처럼 그런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하는 아이들에게 "어제 뭘 했니?" 물어보면 "학원 3개 갔다왔어요"라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이고, 상당수 아이는 3~5세 때부터 해오던 일이라고 했다. 박 교사는 "저학년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 영어·수학 보습학원 외에 수영이나 태권도, 미술, 피아

노 등 예체능 학원도 많이 다닌다"며 "몸을 많이 쓰다 보니 체력이 달리고, 힘드니까 호기심이 떨어지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는 아이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심심할 때 창의력도 생기는 것이잖아요." 박 교사는 "예전 아이들은 심심하게 지내다 보니 놀이를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놀았다"며 "요즘엔 혼자든 여럿이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게임이나 웹툰에 접속해 심심할 틈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창의적인 놀이나 대화를 할 때까지 기다려줄 환경이나 시간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교사들 사이에 "어젯밤 12시에 또 그 문자 받았어"란 말이 곧잘 화제에 오른다고 했다. 아이들이 부모나 자기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모든 번호에 게임하자는 '친구 초대' 메시지를 받듯은 시간에도 무차별적으로 보낸다는 것이다. 박 교사는 "즉각적인 외부 자극에만 길들여진 아이들은 정서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산만한 아이들이 많고, 쉬운 자극에만 반응하며 뭔가를 생각해보자고 하면 못견뎌한다는 것이다.

창의성은 예술과 같은 열린 개념이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문화적 맥락, 즉 기관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창의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교육을 해야 한다(Feedman,2010).

- 창의성은 비판적 반성(critical reflection)에 의존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행동의 과정을 이론화했지만 그 출발점을 이론화한 사람은 극히 적다. 이것이 비판받는 이유이다. 창의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포인트는 바로 긴장 만들기(create tension)이다. 갈등은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긴장을 해야 한다. 창의적인 노력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예술가들의 비판, 개인적 관심사, 이전의 예술에 대한 비판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창의성은 흥미(interests)를 바탕으로 한다.
- 창의성은 학습 과정(learning process)이다. 창의성은 자기 주도적이다. 그래서 자습 활동을 포함한다. 창의성은 자아의 연구(개인의 정체성과 흥미) 뿐만 아니라 자기 동기화(self-motivating)를 의미한다. 이 말은 곧 이전에는 누구도 해 본 적이 없는 학습에 대한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의적인 자기 학습은 취미 활동에 대한 열정 또는 또 다른 강박적 관심의 결과와 같은 학교 밖의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 창의성은 기능적(functional)이다. 예술 교육은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행위의 유용성에 관한 것이다.
- 창의성은 사회적 활동이다.
- 창의성은 재생산이면서 동시에 생산이다. 창의성은 기존의 지식에 의존하고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는 재생산이다. 학습의 과정으로서의 창의성은 새로움의 산출 상황에서 기존의 아이디어, 이미지, 그리고 사물 위에서 건축된다.

- 창의성은 리더십의 한 형태이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까지 못 본 것을 보여주는 문화 일꾼에 의한 리더십의 한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5.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의 방안

창의 인재를 위한 교육은 기존의 교육 체제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 앞서 논의하고 정리했던 것처럼 새로운 창의 사회에 맞는 새로운 교육 체제는 거의 원점에서 아이디어를 그려야 할 수도 있다.

가. 사회 환경의 재조정

조한혜정(2009)은 '창의적 인재가 사라져 간다'는 절박함을 토로하고 있다. '개인이 더 이상 공동체나 관계 속에 밀착되지 못하는 초경쟁적 상태에서는 창의적인 인재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창의성이 가진 '여린 성격'(환경 변화에 민감하다는 의미)에 있다. 사회의 분위기를 과도한 경쟁이 아닌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나. 교육 환경의 재조정

우리나라의 교육은 내용적으로는 너무 포괄적이며, 시간적으로는 너무 장기적이다. 교육과정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매우 방대하다. 교육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방대한 내용을 축소하거나 핵심 역량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최근의 교육은 기존의 교과 중심 교육을 넘어서서 핵심 역량의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상과 같은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 교육도 핵심 역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인지 발달의 단축 현상을 위해 학교 공부 연한의 단축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창의성은 젊은 나이에 활발하지만 우리는 긴 교육기간으로 인해 적응적/순응적 인간형으로 성장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학교 공부는 '학(學)'을 하는데 중점이 있다. '학'은 능동적이기보다는 피동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교사의 존재가 필요한 활동이다. 이에 반해 '습(習)'은 학습자 개인의 능동성을 바탕으로 지혜와 아이

디어를 얻는 자기 자신이 주도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학'에 치중하고 있다. 제한적으로 '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간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밖에 없다. 그런데, 21세기 창조 사회에서는 '습'을 통한 지혜와 아이디어가 생존 능력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표 7〉 학과 습의 관계

구분	학(學)	습(習)
대상	정보, 지식, 원리	사고, 지혜, 느낌
매개자	있음(교사)	없음(자기 자신)
능동성	수동적	능동적
장소	학교, 학원	세상
특성	누적적	비약적
소요 시간	비교적 단시간	비교적 장시간

다. 교육 자원의 재조정

우리나라의 교육 자원은 서로 떨어져 있어 유기적이고 상승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 이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과천과학관의 경우 과학 기반의 창의성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가칭 '아동창의학습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합치는 것이 대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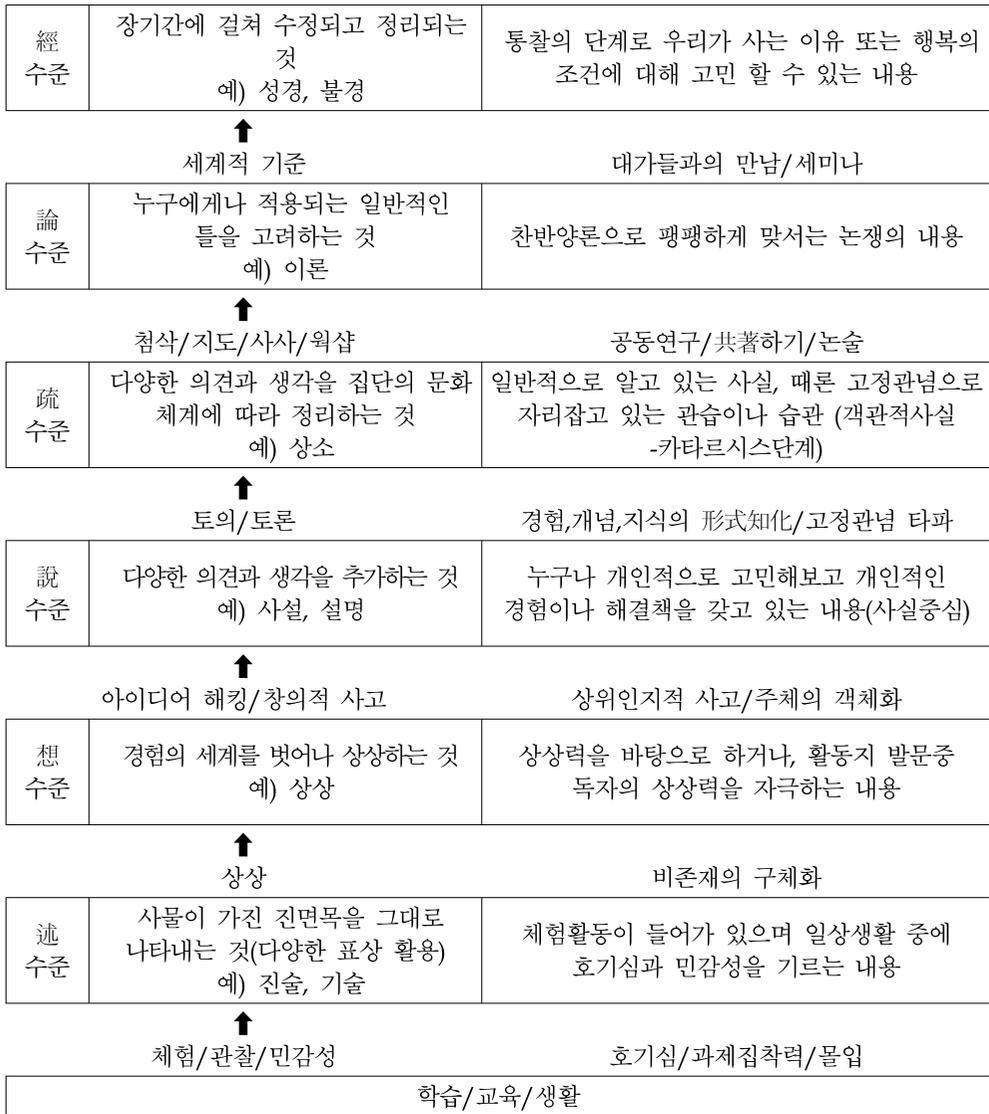
라. 창의성과 창의 인재의 성과 지표 개발 필요

창의인재를 기르는 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마. 창의성 교육 통합 체제 모형 필요

서로 다른 철학적 배경을 토대로 추구해왔던 창의성 교육자들의 노력은 최근 들어 융합적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임선하(2007)는 창의성 교육의 융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여섯단계의 통합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통합 기반의 창의성 교육은 인지의 맨 아랫 단계인 '술'과 '상'을 '설'과 '소'를 거쳐 '론'으로 이끄는 사고 작용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생각한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활동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 반적인 틀'로 만드는 활동 과정에 관여하는 사고 활동의 복합체를 자극하는 활동인 셈이다. 각 단계별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다양한 사고와 교수-학습의 기법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8〉 통합적 창의성 교육의 흐름도



가장 먼저 述 수준의 활동이 있다. 창의성 교육은 학습자들의 원초적인 감각과 진실된 지각을 자극하는 활동(述 수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사고하는 활동(想 수준)을 통해 얻어진 상상력은 사고의 풍부한 재료가 된다. 실제 세계는 감각 기관이 허락하는대로 받아들이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고 상상 활동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박물관은 하나의 좋은 자료이다. 박물관은

‘문자로 적힌 기록이 아니라 실제 유물에서 과거의 생활을 나름대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이원복,2005, p.5). 사실에 부합하고 상상력이 가미된 사고 재료에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고(說 수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견주어 보고 소통하여(疎 수준) 더 큰 생각(論 수준)으로 이끌어 역사 의식을 갖게 하는(經 수준)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 체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영유아 단계에서 거치는 述과 想의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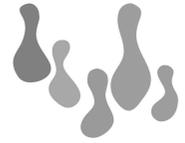
6. 맺는 말

안데르센의 별거벗은 황제 이야기는 영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어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감각 기관이 접한 대상을 왜곡시켜 드러낸다. 하지만 어린이는 달랐다. 순진하게 솔직하게 말했다. “임금님이 아무 것도 안 입었네!”라고. 우리의 교육은 이렇듯 참다운 것을 기반으로 하는 영유아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승규(2011), 학생의 삶에 뒤처짐이 없게 해야 한다-학생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사)미래교육희망 교육정책연구소 2011 교육정책 대토론회. 2011한국 유아교육의 정책적 과제와 전망, 2011.3.3, pp.10-21
- 권미경, 김문정(2012), 2012 유아 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연구보고 2012-25), 서울:육아정책연구소
- 송현숙(2013), “아이들, 호기심이 사라졌다” 초등교사가 본 영유아 사교육 부작용. 경향신문 2013.05.06
- 이기숙(2007), 차기 정부의 유아 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환태평양 유아교육연구학회 한국학회 발표논문, 2007.11.23
- 이명현(2011), 우리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 미래형학교설립운동포럼의 기초강연. 2011. 2. 10. 미래형학교설립운동준비위원회 프레지던트호텔.
- 이원복(2005),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 간다. 서울: 효형출판.
- 임선하(2012),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 전략, 국립민속박물관 주최 창의인성과 박물관 교육 세미나 발표 논문, 2012.6.27

- 임선하(2011), 한국교육개발원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 전략 제5차 전문가 종합 포럼', 서울중앙우체국, 2011년 10월 11
- 임선하(2010),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체제 개선 방안-(가칭) 창의학교를 생각하며-, 제2회 미래형 학교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2010년 11월 12일, 홍사단본부
- 임선하(2007), 창의성 기반의 논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원:경기도교육청
- 임선하(1998), 창의성의 틀-DESK 모형 접근-, 서울:현대창의성연구소
- 임선하(1993), 창의성의 초대, 서울:교보문고
- 조한혜정(2009), '창의적 인재가 사라져 간다', 2009서울청소년창의성 국제심포지움 2009년 6월 1일
- Arieti,S.(1976), Creativity:The Magic Synthesis. N.Y.:Basic Books,Inc.
- Botkin,J., Elmandjra,M, Malitza,M.(1979), No Limits to Learn, Rome:Rome Club
- Freedman(2010), Rethinking Creativity-a definition to support contemporary practice, Art Education 2010 March, pp.8-15
- Gibson,W.(2003), The future is already here - it's just not evenly distributed., The Economist, 2003.12.4.
- Gowin,R.(2005), 임연기 역(2005), 교육학의 이해(Educating), 공주:공주대학교출판부
- Illich, I. 저(1970), 김광한 역(1984), 탈학교 논쟁, 서울:한마당
- Lieberman,M.(1993), Public Education:an autopsy, Cambridge:Harvard University Press
- Mansfield and Busse(1981), 임선하 역(1993), 창의적인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서울:하우
- Sternberg,R.(2006), The nature of Crea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8-1, pp.87-98
- The Great Books Foundation(1999), An Introduction to Shared Inquiry-A Handbook for Junior Great Books Leaders, Chicago:The Great Books Foundation
- Wertsch,J. and Tulviste,P.(1992), L. S. Vygotsky and contemporary developmental psychology,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pp. 548-557



토론

이경희 |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김은설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의 방향 토론

이경희(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1.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의 교육을 들여다보며 지적하신 문제점과 창의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의 틀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의로운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 창의성이 자극되는 조건에 대한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창의성에 관한 전문가이시기에 창의성 교육에 관해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발표하신 내용의 원칙적인 면에 대해서는 저 또한 모두 동감합니다.

창의사회에서의 교육모형이 '의미모형'이라면 이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모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방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안하신 의견들은 원칙적인 설명들을 수렴하기에 구체적인 면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보육에서 창의성을 향상시키기란 실현시키기 어려운 과제이며 참으로 무거운 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표하신 내용의 속지에도 어려운 점이 많아 토론자로서 과연 적합한가를 돌아보며,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발표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2.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의 방향'에 대한 토론

1) 영유아교육/보육에서 추구하는 전인적인 발달과 창의성과의 관계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양질의 교육보육, 양질의 교사양성과 더불어 영유아에게 창의성 개발교육을 병행하면 창의인재 양성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들어가는 글: '전인적 발달에 중점을 둔 우리의 교육 전통에서는 영유아기의 교육이 인간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받아들여졌다.'.. '즉시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보다는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한 교육 시스템인 영유아 교육에 주목하는 이유.'
- ⇒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한 방안과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들어가는 글에서

전인적 발달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전인발달과 창의성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보는 것인지 먼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보육에서 이미 추구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내용이 창의성 개발에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교육과정속에서 발표자가 제안한 정책과 실천방안(양질의 유아교육 지표 설정필요, 양질의 교사양성과 자격기준 설정 필요, 사교육과 특기교육 정비 필요)을 첨가하면 창의인재 양성이 된다는 주장인지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보육의 제안된 정책' 내용을 보면 발표자께서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기숙(2007)의 유아교육 정책 7대과제나 강승규(2011)의 한국유아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제언의 내용을 인용하셨는데, 이는 모두 창의성에 대한 강조보다 일반적인 영유아보육교육의 질에 대한 내용(체제개선, 역량개선, 재정지원 확대)이어서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양질의 교육과 더불어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실행한다면 창의인재 양성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 실천방안의 하나로 말씀하신 양질의 유아교육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줄 수 있는 자극변인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신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것이 모든 교과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에만 해당된다면 첫 번째 저의 질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기존교육에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지표만으로 창의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모든 교과 활동으로 확산된다면 양질의 교사양성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서 창의인재 양성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은 교사의 역량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3) 사교육과 특기교육의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의 실천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견개진이 부족합니다. 특기교육에 의해 창의성이 길러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듯 보이긴 합니다. 이에 기관의 문화적 배경, 즉 '긴장 만들기'를 강조하신 듯 보이는데, 이점 또한 교사의 역량과 관련되어 창의인재 양성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 교사의 역량개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4)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의 방안은 '실천방안'과 다소 다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마도 실천하기에는 어려워 '나아갈 방향'으로 언급하신 듯 합니다. 이중 '교육 환경의 재조정'에서 '핵심역량 키우기'는 기존의 교육과정 내용과 활동으로 향상시키기에 역부족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사회환경의 재조정'과

더불어 현 실정에서 요원하기에 향후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점차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5)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의 방안 중 '교육자원의 재조정'을 통해 그리고 '창의성 교육통합 체제모형'에서 말씀하신 '술'과 '상'에 해당하는 체험활동과 발문과정이 제가 일하는 어린이박물관에서 추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방법과 일치하므로 어린이박물관 확산을 통해 영유아의 창의성 육성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학습으로 연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연 효과성에 있어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의 방안의 하나로 이야기하기엔 좀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 나가는 글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무엇보다도 양질의 교사를 길러내고 선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교사변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길러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도와 연습에 의해 창의지도 교사역량이 길러질 수 있다면, 영유아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체 교육과정의 변화와 발문과 토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 반 영유아 수의 축소 등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의 방향 토론

김은실(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근 교육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창의인재 양성'이고 '창의·인성 교육'임. 오늘 발제를 들음으로써 이 주제에 대해 보다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좋은 발표를 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특히 '창의·인성'이란 용어에서 나오는 '창의'가 일반적인 '창의성'과 같은 개념인지 또 다른 창의성인지 주변인들과 논란이 있었는데 분명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됨.

본 토론자가 창의성 발달이나 교육에 대한 전문가랄 수는 없고 그 분야 연구를 많이 하지도 못했기에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구체적인 토론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정책 연구자로서 발표자가 제시하고 있는 제안을 확인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연구의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점들을 짚어보고자 함.

발표자께서 영유아기 창의성 발달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주장을 요약해보면,

첫째, 환경은 창의성을 정의하고 평가할 뿐 아니라 창의성을 자극하고 지원하므로, 거시적 환경인 문화환경, 미시적 환경인 가정 및 학교환경을 고려해야 하여 특히 학교의 인적, 물적 환경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함.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사의 노력과 환경 조성 필요. 창의성 조기개발과 교육을 위해 특히 유아교사의 연구·노력이 요구됨.

둘째, 창의성은 발달되는 것으로, 창의적 능력과 성격의 결정적 시기로서 유아기를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시기 창의성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고 지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창의성은 교사와 부모에 의해 신장될 수 있으므로, 이 시기 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읽을 거리와 놀잇감을 제공하고 발견을 격려하고 창의적 활동에 참여함이 중요함.

셋째,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통합한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수업모델이 체계적으로 개발·적용되고 교원대상 연수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발표자가 창의성 신장을 위해 중요하고 필요한 사안들을 모두 짚었다고 봄. 다시 말하면, 창의성이 계발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고, 영유아를 창의적 활동으로 이끌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연수가 우선 필요함. 이 의견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함.

이러한 의견에 덧붙여, 본 토론자가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함.

첫째, 영유아기 교육·보육 공통과정인 '3-5세 누리과정'은 창의성 계발이라는 주제를 충분히 포함하여 다루고 있는가 하는 문제임. 2012년 발표된 '5세 누리과정 해설서'를 보면, 누리과정의 기본·구성 방향 5개 중 3번째가 '전인 발달이 고루 이루어진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임. 그러나 누리과정의 목적은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을 기르고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에 두고 있음(p.13). 즉, 능력 신장과 인성은 목적에 포함되고 있으나 '창의 인재, 창의성'이란 주제는 빠져 있음. 목적에 창의성을 포함하는 것이 창의 인재 양성이란 제정 방향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봄. 목적에 있는 '인성 교육'이 어느 한 영역의 목표로 제시되지 않고 누리과정 전 영역에서 이를 추구하도록 잠재적으로 녹아들어 있는데 반해, 창의성은 한 영역, 즉, 예술경험 영역에만 '창의적 표현'이란 용어가 등장함으로써 차이를 보임. 물론 자연탐구 영역에서도 '호기심, 탐구'라는 표현이 목표에 있으나 직접적인 '창의성' 지향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5개 영역으로 구성된 각론으로 들어가면, 세 군데에서 창의성 신장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찾을 수 있음. 1) '의사소통'영역 중 '말하기' 세부내용으로 느낌, 생각을 창의적으로 이야기지어 말하도록 함. 2) '예술경험'영역에서는 목표에 '창의적 표현 능력'을 제시하고 '예술적 표현하기' 내용범주를 둬. 3) '자연탐구'영역에서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내용 범주에서 호기심 유지, 확장을 지도 내용으로 함. 다시 말하면, 창의성 계발을 위해 교사는 이야기 짓기, 음악, 미술 등으로 표현하기, 과학적 호기심 자극 등에만 관심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임. 5세 누리과정 전체 총 62개 세부내용 중 6-7개에서만 창의성과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음.

창의성은 예술표현이나 이야기 창작에서만 길러지는 '특수 능력'이 아니라 발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삶의 핵심 역량'이고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격려하며 기를 수 있는 '일반 능력'임. 또한 능력일 뿐만 아니라 '성격'이기도 함. 따라서 '인성' 교육과 마찬가지로 창의성 신장 또한 누리과정의 '목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영유아기 모든 활동 속에서 교사가 계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창의성은 아동의 신체활동에서도, 또래와의 사회관계 활동 속에서도 길러질 수 있고, 기본생활습관을 익히는 과정에서도 발휘되고 격려될 수 있음. 중요한 것은 이를 교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임. 그러므로 창의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현 시점에서, 누리과정 속 창의성 지도에 대한 인식과 위상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발표문에서 제시되었듯이 만5세경에 제도권 학교 준비 등으로 창의성 발달이 떨어지고 주춤해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상기한다면, 5세 누리과정에서 창의성의 강조는 특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둘째는 교사 양성 교육과정 속에 '창의성 지도'를 필수 포함시켜야 할 것임. 발표자는 교사의 창의성 지도 연수를 제안하셨는데, 이에 덧붙여 예비교사 교육에서도 '영유아 창의성 지도'를 이수 과목으로 포함해야 함. 현재 유치원교사 양성 필수 교과목이나 보육교사 양성 필수·선택 교과목에는 '창의성'을 제목으로 한 과목의 설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현직 교사 연수뿐만 아니라 양성과정에서부터 교사의 주된 역할 속에 아동의 창의성 계발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교사로서의 태도를 발달시키는 데 핵심적인 동기가 될 수 있음. 참고적으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양성과정 필수 교과목을 <표 1>에서 비교함.

<표 1> 보육교사 양성교육 교과목과 유치원교사 양성 필수 교과목의 비교

영역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주)}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교사자격증 필수 교과목
보육 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12학점) 필수	유아교육학 개론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발달과 교육
영유아 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수·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놀이와 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동작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조형교육, 유아교육과정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유아교사론, 아동복지
보육 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점) 필수	유치원교육실습
전체	12과목(35학점) 이상		52학점(전과목 전공필수)

주: 2009년도 유치원교사 양성 필수 교과목의 사례 중 하나로, 서울시 소재 E여자대학 유아교육과의 교육과정임.

자료: 김은설 외(2009).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셋째, 발표자께서 강조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하고 싶음. 여기서 환경은 물적, 인적 환경 모두 일 수 있지만, 특히 가변성이 높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음.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교실 또는 보육실은 어느 유치원,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대동소이함. 그것은 물론 교실 환경 구성에 대한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지침 준수가 요구되기 때문이지만, 지역에 따라, 계절에 따라, 또는 교사와 아이들의 개성에 따라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졌으면 함. 예를 들면, 어디를 가나 비슷한 모습의 책걸상이 한 칸에 있고 선택활동 놀이 영역이 벽 방향을 둘러가며 구성되어 있음. 이를 형태와 색깔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제작하여, 비슷한 공간 속에서도 아이 하나하나의 결상 모양과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교구장의 모습을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고, 쌓기 영역에서 역할놀이나 숫자놀이를 할 수도 있게 구성함. 물리적 환경의 다양함과 개성의 존중이 창의성 계발의 터전이 될 수 있을 것임.

무엇보다 우리의 인식 속에서 창의성 발현에 대해 '존중'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듦. 누군가가, 어떤 어린이가 집단 내 다수와 다른 반응을 하는 데 대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오히려 더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사회구성원 모두가 허용적일 수 있어야 할 것임. 특히 부모나 교사는 기존의 틀에 비추어 통일성을 우선 요구하기 보다는 아이 속에 있는 창의성을 들여다보고 자유롭게 풀어져 나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릴 필요가 있음. 창의성의 의미와 영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주신 발표자께 감사드립니다.